

기독교 중고생 10명 중 6명, 학교와 교회 가르침 사이 ‘세계관 충돌’ 경험!

오늘날 다음세대는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적 가치관과 학교/사회에서 접하는 세속적 가치관 사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2026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사)꿈이 있는 미래·목회데이터연구소 공동 출간)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중고생 10명 중 6명(59%)이 학교와 교회 가르침 사이에서 ‘세계관 충돌’을 경험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 이상은 신앙과 일상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분리신앙’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교회 현장의 대응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회학교 사역자의 73%가 ‘현재 교회 교육은 성경적 가치관의 일상 적용을 돕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정기적으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교회는 23%에 불과했다.

이번 <넘버즈 347호>에서는 다음세대가 경험하는 ‘세계관 충돌’과 ‘분리신앙’의 실태를 살펴보고, 성경적 가치관 교육의 방향과 실질적인 목회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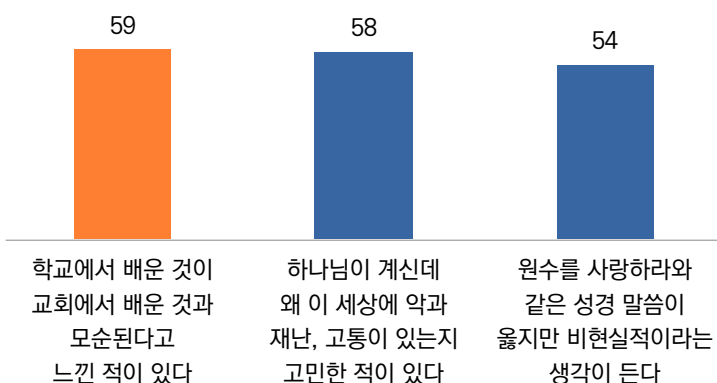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분	내 용				
	일반 학생	학부모	담임목사	사역자	교사
조사 대상	만 14세~19세 개신교인 학생 (교회 출석 학생)	만 14~19세 자녀를 둔 개신교인 부모 (교회 출석자)	교회학교 부서가 있는 한국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사역자)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사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표본)	총 600명 (유효표본)	총 500명 (유효표본)	총 300명 (유효표본)	총 435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학급별 비례할당 추출 (자녀기준)* 비례할당 추출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발간한 2025년 교육통계연보 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함.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4%p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0%p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6년 01월 22일~02월 06일			2026년 01월 22일~02월 02일	2026년 01월 19일~02월 28일
조사 의뢰 기관	(사)꿈이 있는 미래(꿈미)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기독교 중고생 10명 중 6명, 학교와 교회 가르침 사이 '세계관 충돌' 경험!

- 기독교 중고생(교회 출석자)이 실제 삶과 성경적 가치관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배운 것이 교회에서 배운 것과 모순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주+가끔 그렇다)이 59%로 나타났다. 기독교 중고생 10명 중 6명이 학교와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서 세계관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 이어 '세상의 악, 재난, 고통에 대한 고민'(58%), '원수 사랑 등 성경 말씀의 비현실성에 대한 고민'(54%)도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그림] 성경적 가치관 갈등 (교회 출석 중고생, '자주+가끔 그렇다' 비율*,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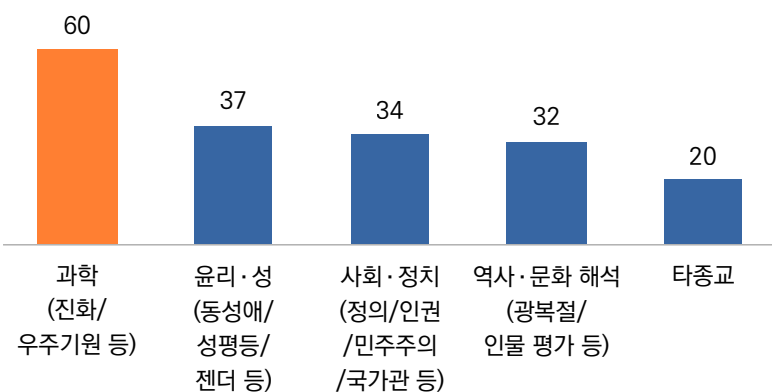


*5점 척도

교회-학교 학습 간 가장 모순을 느끼는 분야 1위, 과학분야(진화 등)!

- 교회와 학교 학습 간 모순을 느끼는 분야로는 '과학'(진화/우주기원 등)(60%)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다음으로 '윤리·성'(37%), '사회·정치'(34%), '역사·문화 해석'(32%)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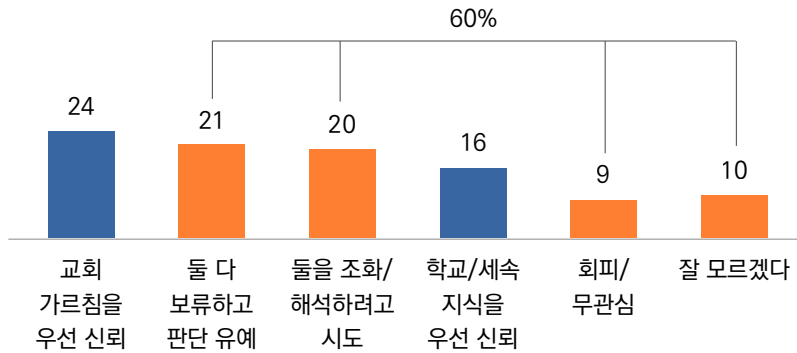
[그림] 교회 가르침과 학교 학습이 모순된다고 느낀 분야 (학교-교회 학습이 모순된다고 느낀 교회 출석 중고생, 중복응답, 상위 5개, N=295, %)



모순점 발견 시, 교회 가르침을 우선 신뢰하는 학생, 4명 중 1명꼴!

- 교회 가르침과 학교 학습 내용 간 모순을 느꼈을 때, 학생의 60%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판단을 유예(21%)'하거나, '조화를 시도'(20%), 혹은 '회피/잘 모르겠다'(19%)는 응답을 보였다.
- 반면 교회 가르침을 우선 신뢰하는 경우는 24%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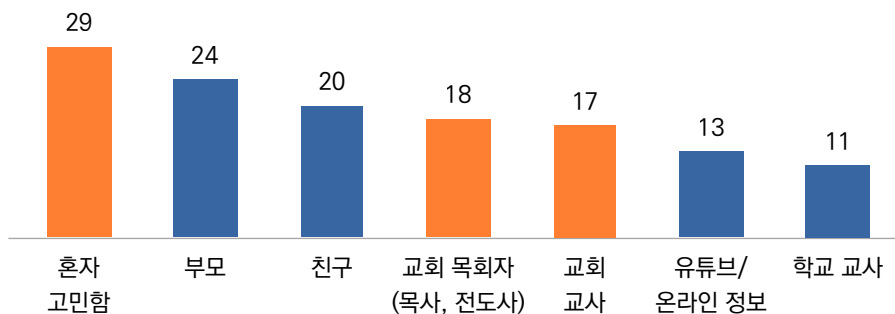
[그림] 교회 가르침과 학교 학습 사이 모순점 발견 시 태도 (학교-교회 학습이 모순된다고 느낀 교회 출석 중고생, N=295, %)



모순 느낄 때, 목회자/교사에게 조언 구한다, 10%대에 그쳐!

- 학교와 교회 교육 내용 간 모순점 발견 시 조언을 구하는 대상으로 '혼자 고민함'이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모'(24%), '친구'(20%) 등 사적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회 목회자'(18%)나 '교회 교사'(17%) 등 교회의 공식적 리더에게 조언을 구하는 비율은 10%대에 그쳤다.
- 학생들이 모순을 발견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마음 놓고 질문할 수 있는 신뢰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이를 신앙 안에서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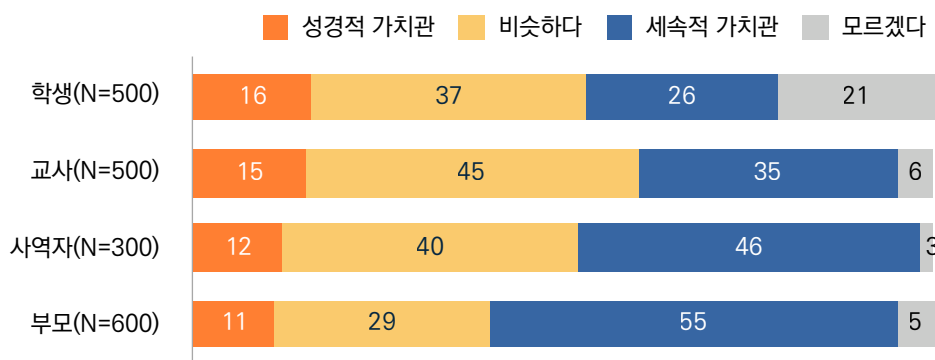
[그림] 모순점 발견 시 조언 대상 (학교-교회 학습이 모순된다고 느낀 교회 출석 중고생, 중복응답, 상위 7개, N=295, %)



기독교 중고생, 성경적 가치관보다 '세속적 가치관' 영향 더 크게 받아!

- 기독교 중고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든 그룹(학생, 교사, 사역자, 부모)에서 '성경적 가치관'보다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응답 그룹별로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응답은 부모(5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사역자(46%), 교사(35%), 학생(26%)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경적 가치관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응답은 모든 응답자 그룹에서 10%대(11~16%)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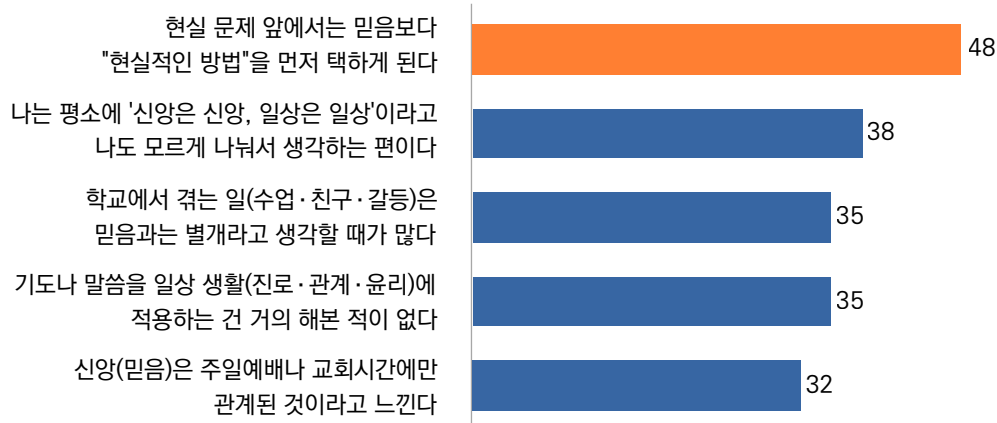
[그림] '전반적인 생활'에서 학생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



기독교 중고생 3명 중 1명 이상, '신앙과 일상의 분리' 태도 보여!

- 신앙의 일상 적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기독교 중고생의 절반 가까이(48%)가 '현실 문제 앞에서는 믿음보다 현실적 방법을 먼저 택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신앙과 일상을 나눠 생각한다'(38%), '학교생활은 믿음과 별개'(35%), '기도·말씀을 일상에 적용해 본 적 거의 없다'(35%)가 모두 30% 중반 대로 집계되어, 기독교 중고생 3명 중 1명 이상이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이른바 '분리신앙'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신앙의 일상 적용에 대한 인식 (교회 출석 중고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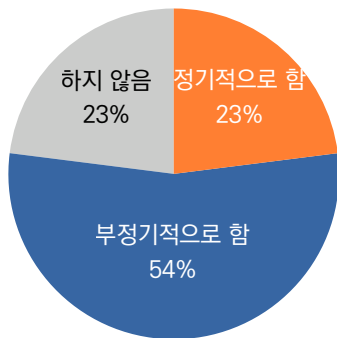


*5점 척도

정기적으로 성경적 가치관 교육하는 교회, 23%에 그쳐!

-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교회학교 학생·학부모 대상 성경적 가치관 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교회는 23%에 불과했다. 반면 ‘부정기적 실시’ 54%, ‘실시하지 않음’ 23%로 집계되어 10곳 중 8곳 가까이 체계적인 가치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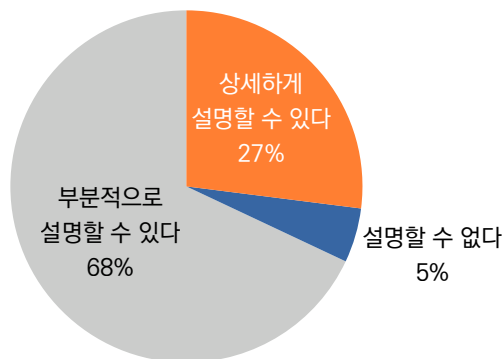
[그림] 교회학교 학생/학부모를 위한 성경적 가치관 교육 운영 실태 (담임목사, N=500)



성경적 가치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4명 중 1명에 불과!

- 교회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은 결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응답은 27%에 그쳐 교사 4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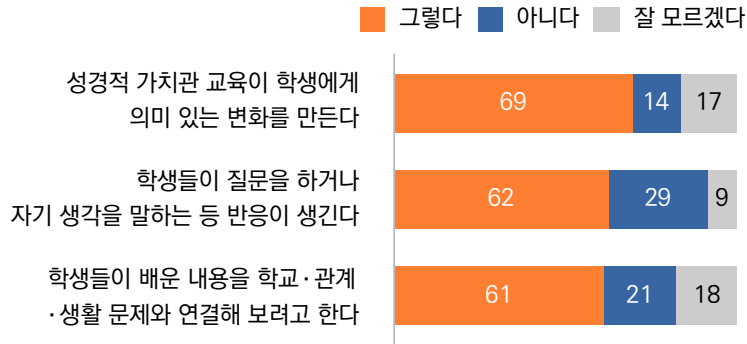
[그림] 성경적 가치관 개념 설명 역량 (교사, N=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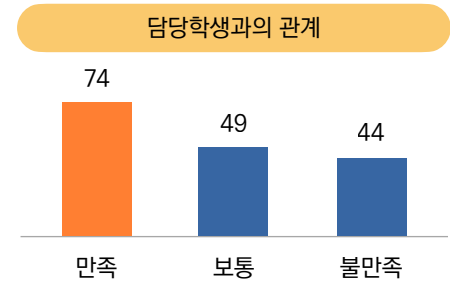
성경적 가치관 교육 시, 학생들 반응 ‘긍정적’!

- 교사가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할 때 학생들 반응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은 ‘학생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69%), ‘질문 등 학생들의 반응을 가져오며’(62%), ‘학교·생활 문제와 연결 시도까지 나아가는’(61%) 등 학생들의 긍정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 특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다’는 비율은 교사-학생 관계가 ‘만족’일 때 74%로, ‘불만족’(44%) 대비 30%p 높았다. 이는 가치관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형성임을 시사한다.

[그림] 가치관 교육 시 학생 반응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사, N=3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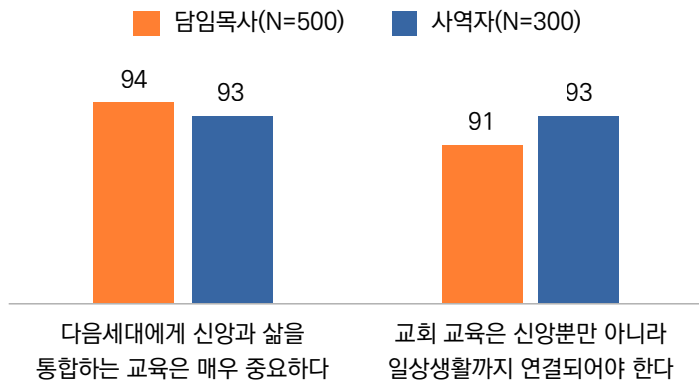
[그림] ‘성경적 가치관 교육이 학생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다’ 동의율 (담당 학생과의 관계,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사, N=373, %)



교회 교육, ‘신앙과 삶의 통합교육 시급’!

- 교회학교에서 실시되는 신앙-일상 통합 교육에 대한 담임목사·교회학교 사역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담임목사·사역자 모두 90% 이상이 다음세대에게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교육이 중요’하며, ‘신앙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연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그림] 신앙-일상(삶) 통합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이번호 요약

1. 기독교 중고생 10명 중 6명, 학교와 교회 가르침 사이 '세계관 충돌' 경험!

기독교 중고생(교회 출석자)이 실제 삶과 성경적 가치관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배운 것이 교회에서 배운 것과 모순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주+가끔 그렇다)이 59%로 10명 중 6명꼴이었다.

2. 정기적으로 성경적 가치관 교육하는 교회, 23%에 그쳐!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교회학교 학생·학부모 대상 성경적 가치관 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교회는 23%에 불과했다.

3. 교회 교육, '신앙과 삶의 통합교육 시급'!

담임목사/사역자 모두 90% 이상이 다음세대에게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교육이 중요'하며, '신앙뿐 아니라 일상 생활까지 연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AI 시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세대를 디자인하다 (익투스, 신국원 외 6명)

관련 성경 구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7절)

목회 적용점

이번 다음세대 기독교 세계관 조사 결과는 다음세대의 신앙적 위기가 단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통합적 가치관'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독교 중고생 10명 중 6명(59%)이 학교와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서 충돌을 경험하고, 3명 중 1명 이상이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교회 교육이 실제 삶의 판단 기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앙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과학, 윤리, 사회 등 학생들이 부딪히는 일상을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학생들이 신앙적 혼란을 풀어낼 수 있는 '안전한 질문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가치관 충돌을 겪은 상당수 학생이 판단을 유예하고 '혼자 고민한다'고 응답한 결과는,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로 인해 학생들이 고민하는 신앙적 의문들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교회학교 내 목회자와 교사가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토론하며 답을 찾아가는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성경적 가치관 교육을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핵심 교육 체계로 세워야 한다. 참고로 현재 정기적인 성경적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는 23%에 불과하다. 또한 교사의 설명 역량과 관계성이 교회학교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직결되는 만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가치관 교육, 교사 교수법 등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수련회 운영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